■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만족 제목:나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시편 57편 1-11

1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57:1-11)

사람에게 만족을 얻거나, 세속적인 것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들은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을 경우가 많다.
-왜냐면 세속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는 길

밖에 없다. 사람도 농익을수록 좋다.

-사람들이 청년을 좋아하는 것은 젊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때문이다. 성장 후에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그들을 부패시키는 세속적인 것들과 거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한다.

-음식물은 숙성 되든지 부패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사람도 성숙하든지, 악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가장 보람된 삶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악해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들과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들과 지혜롭게 거리를 두던지, 거리를 둘 수 없으면(식구나 교회나 일터의 경우) 꾀를 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는 것이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만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도 있고, 나의 원수 일수도 있다. 본문 말씀의 문맥상 그들은 오히려 다윗 앞에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주를 찬송하리라. 내가 누워 쉬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죽임을 당하도록 불을 놓았다. 웃는데 사용하는 이는 창과 화살로 사용하고, 그토록 부드러운 혀는 나에게 칼과 같도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와중에 선을 선택하였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

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하게 된다.

-그리고 나도 부패하게 된다. 내가 만민 중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나를 해하려는 중에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1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극명하게 갈린다.

-악한 자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 향한 원망인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원망에는 답이 없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책망밖에 도리가 없다.

-그러나 선한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은혜를 구한다. 자비를 구한다. 피할 곳을 구한다. 그리고 회개한다. 자기가 회개하고 악한자를 위해서 중보한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때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선하시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신다.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그 자비하심을 구하자.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분. 인자와 진리가 의인화 되었지만, 사실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다.

-인자와 진리의 세속적인 표현이 사랑과 진실이다.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 속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인자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을 나에게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표현이다.

-내가 영원히 경외할 분 하나님. 나를 위해 나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그 분을 만날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보호를 받으며 만족을 누린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진리로 나를 보호하신다.

-나도 같이 물고 뜯으면 서로 손해. 마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서로 물고 뜯어서 서로 망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높이면 나는 만족을 누리며 올무에서 벗어난다. 아멘.

> 7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
>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
>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
>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
> 11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57:1-11)

<찬양예배>

주제:예수님　　제목:친절하신 예수님　　말씀:마태복음 11장 20-30절

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2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20-30)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

-악할 대로 악한 인간의 실상.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인간들의 사악함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탄식 앞에 깊이 회개해야 한다.
−사람은 상상외로 악하다. 우리 모두는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니, 한 순간도 잊지 말고 조심하며 주의하자.
−더 겸손하게 말하고, 더 겸손하게 행동하자.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더욱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내가 죄악 중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무서운 세상이다. 악한 말이나, 엉뚱한 말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이나 말들이 유익하거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하자.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온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다가가자.

−세상은 친절한 사람을 기다린다. (마켓에서는 친절이 마케팅의 기본이다. 블랙 컨슈머들은 마켓팅의 도구들에 불과하다. 블랙 컨슈머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다.)

−세상에서 불친절을 당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 안식을 얻자.
−예수님을 배우자. 예수님의 친절과 그 온유하심을 누리자.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친절 부드러움, 온유함, 우리의 까칠함과 위협함을 회개하자.